

합격기
(2011년 행시 일반행정직(전국) 합격)

“자신만의 공부방법과 페이스로 나아가라”



강 효 진

- 1989년 생
- 경기 백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3년 재학 중
- 2011년(제55회) 행시 일반행정직(전국)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 행정고시 일반행정(전국)직에 합격한 강효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시를 시작하며 선배님들의 여러 합격수기를 읽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될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2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합격수기를 찾아 읽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수험생 분들께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격수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수험생활을 시작하여, 공부 기간을 2년으로 잡고 2011년 시험을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그것에 따라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운도 정말 많이 따라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계획성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언제 시험을 목표로 할 것인지, 또 그때까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권의 실력을 쌓아나갈 것인지, 미리 공부계획을 차분히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2~3년 정도의 기간 내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데, 이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어 보이고 넉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만큼 합격 을 위해 요구되는 공부량 또한 많습 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공부해 야만이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I. 시기별 공부 방법

1. 2009년 7월 ~ 8월

9월부터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두 달 동안 여러 개의 행정고 시 합격수기들을 찾아서 정독했습니다. 과목별 공부 순서는 어떻게, 공부 계획 은 어떻게 짜고, 답안지 작성 연습은 어 떻게 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특히 합격수기 중에 벤치마킹해야 할 부 분은 따로 추려서 정리해두었습니다.

2. 2009년 9월 ~ 1차 시험

경제학부터 예비순환을 듣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을 듣고 난 다음에는 행정법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행정법 예비순환 복습 + 경제학 복습 이런 식으로 틀을 짜서 다음 과목과 그 전 과목을 병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진도가 잘 나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도 12월 말까지 정치학 예 비순환을 모두 듣는 동시에 각 과목을 2 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중반부터는 피셋을 조금씩 풀 기 시작했으며, 1월 달 중순부터는 본격 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하루 에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 중 두 타임 은 피셋에 할애하고, 한 타임은 정치학

과 경제학을 다시 복습하는 데 남겨두었 습니다.

그 해 겨울에 합격생 3분을 만나 조언 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크게 도움 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격생 중 한 분이 저와 공부 스타일이 매우 비슷하여 그 분의 조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합격 생들을 만나면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2010년 2월 ~ 2차 시험

운 좋게도 피셋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차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3순환을 듣 는다가나 무리하게 당해 시험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애초에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피셋 공부 전 까지 전 과목 예비순환을 다 들어놓아 서, 1차 시험 후에는 경제학 2순환을 듣 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순환 다음에는 1 순환을 들어야 정석이긴 하지만, 제 현 재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는 것이 실력을 쌓는데 더 도움이 되 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순환과 2순환은 상당한 수준차가 있지 만, 예비순환을 듣고 복습을 두어 번 해 서인지 따라가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 습니다. 2순환을 듣고 문제풀이를 하면 서 실력이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 습니다.

이 기간에는 처음으로 답안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1순환 또는 2순환을 들 으면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나름 대로 써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50 점짜리를 쓰는데도 두 세시간씩 걸렸고 답안 형식도 엉성했으며, 내용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답안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써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답안 쓰는 게 어렵다고 해서 절대 예시답안을 보고 쓰지는 않았습니니다. 처음부터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답안의 틀을 세워보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서 답안 작성의 기초 실력을 조금이나마 얻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 2010년 7월 ~ 12월

2차 시험을 치고 일주일 간 휴식한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슬슬 단권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경제학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원래는 3순환을 바로 들으려고 했으나, 이번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을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3순환을 듣기보다는 여러 교과서들을 두루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의 내용을 조합해가면서 강사 서브 교재에 단권화를 하는 것을 7~8월 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과서를 읽은 후에는 3순환을 동영상으로 수강하면서 스스로 매일 답안 작성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실력을 빠르게 쌓고자 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답안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선배,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구성하여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기출문제를 50점짜리씩 작성하였고, 서로 답안을 바꿔보며 첨삭을 해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시간 맞춰 답안을 쓰며 첨삭을 받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잘 못 쓴 답안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가 끝나고 다시 혼자 한번 써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터디가 없는 날에도 혼자라도 답안을 써 매일 50점씩 꼭 쓰려고 노력했으며, 100점을 쓰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답안 작성은 스터디와 3순환 동영상 수강 등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3순환 기간과 다름 없게 매일 50점씩 썼습니다.

5. 2010년 1월 ~ 2월

올해 1차 시험일은 2월 26일로, 날씨가 상당히 늦어 1월달에 들어서야 피셋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셋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고 2차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피셋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위주로 풀이하였고, 하루에 두 타임씩 할애하였습니다. 피셋 공부 외에 나머지만 타임에는 정치학 논문집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하고, 정책학 사례노트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2010년 3월 ~ 6월

1차 시험이 끝나고는 공부 장소를 학교 도서관에서 신림동 독서실로 옮겼습니다. 3순환을 듣지는 않았지만 답안 스터디를 하려면 아무래도 신림동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1차 시험 끝나고 거의 바로 답안 스터디를 구해서 아침에 50점, 저녁에 50점씩 각각 올해 강사님들의 경제학 3순환 문제를 구해서 썼습니다. 특히 아침 스터디는 저를 제외하고 다른 스터디원들이 다들 정말 뛰어나서 많은 자극이 되었고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답안 스터디를 아침, 저녁으로 하여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풀여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전 과목을 꼼꼼히 다시 한 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전 과목을 빠르게 여러 번 회독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꼼꼼히 한번 보는 것이 저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와 병행해서 4순환 모의고사를 구해 풀며 매일 100점씩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등, 답안 작성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피셋의 경우 먼저 과목별 기본서를 사서 한 번씩 풀어보았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만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스테디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진 분량을 풀도록 노력하였고 문제 풀이가 끝난 후에는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제 사고과정에서의 오류를 교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사들의 모강문제지도 몇 번 풀어보긴 하였으나 기출문제에 비해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와서 그냥 풀지 않았고 기출문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총 기출문제를 3번 정도 반복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과목 중 자료해석이 가장 약하여서 자료해석은 따로 두꺼운 문제집을 하나 사서 기출문제와 병행하여 조금씩 풀이하였습니다. 문제집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소소한 스킬들 중에 스스로에게 맞는 것을 체득하여 문제풀이에 유용하게 활용하였고, 그 결과 자료해석

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 제2차 시험

(1) 경제학

경제학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 거의 강사님 강의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구 저 미시경제론과 정운찬 저 거시경제론을 주 교과서로 보며 강사님 서브 교재에 단권화를 하였고, 강사님께서 나누어준 문제풀이 자료를 계속 반복해가며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자료 등을 구해 보는 등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경제론 역시 최근 일행에서도 간간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사님 특강을 들었고, 강사님이 나누어주신 자료를 5~6회독 정도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1, 2문이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었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깔끔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수식 외에도 그래프와 경제학적 의미 등 역시 적절하게 써주었습니다. 다만 3문 국제경제론의 경우 전날 국제경제론을 보지 않은 탓에 잘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3-1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그래프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 노력했고, 3-2는 거의 답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경제학이 쉽게 출제되었던 것은 경제학에 약했던 저에게 상당히 운이 좋았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끝까지 자신이 없어 막판에 정리를 하면서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볼걸 하고 후회

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학은 작년 점수를 후하게 줘서, 생각지도 못하게 70점대의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강사님의 서브 교재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교재에 실린 대로 학습의 논거와 판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며 외웠습니다. 특히 판례는 단순히 결론뿐만이 아니라 판례의 구체적인 문구까지도 거의 다 외웠고, 답안에 꼭 판례의 구체적인 문구를 적시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교과서는 처음에 홍정선 저를 보았지만 너무 어려워 예비순환 이후 거의 보지 않았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물론 좋겠지만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위크북이나 서브만 보아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고 또 답안 작성 틀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비교적 공부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키포인트는 판례 암기와 법조문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판례를 4개 정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1문의 2의 비공개 결정시 비교형량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 2문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판례, 3문의 대집행 가능성과 관련된 판례 등을 적어주었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구체적인 근거까지도 통으로 암기하고 정확한 문구를 적어주고, 따옴표로 강조 표시를 하여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조문의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에서 법조문을 거의 20개 정도 적시했고, 2시간 내내 법전을 뒤적거리면서 답안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고득점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1문의 경우 행정심판법을 그 조항 번호는 물론이고 법 조문까지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3문의 공물의 문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조문을 꼼꼼하게 적시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강사의 예시답안을 보니 3문은 철회 3단계로 논해야 하는데 저는 실전에서 허가 취소가 철회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고, 특히 철회 제한 사유로서 신뢰보호 원칙과 실권의 법리를 전혀 언급하지 못해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면 법 조문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의 7조, 10조, 33조를 차례로 적고 허가 취소의 근거 조항을 33조 2항으로 찾아서 적시해주는 등 법 조문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박경효 교수님의 예비순환, 1순환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단권화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한국행정학이나 기타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박경효 교수님 자료가 거의 빠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학은 사례를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례를 많이 알아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학 사례노트를 따로 만들어 중요한 사례를 정리해두고 답안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였

습니다.

행정학은 답안 작성 연습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신림동식 친필일률적인 답안을 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단순히 외운 것을 전부 토해내는 답안이 아니라, 문제가 '묻는 바'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논리적인 목차 구성과, 목차와 목차 간의 연결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해 주려 노력하였고, 기본적인 개념은 간략히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작년 일반행정직 행정학 제 1문의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사람과 조금 이나마 차별화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에서 묻지 않아도 관료제와 정부신뢰의 개념을 간략히 정의하였고, 둘째, 정부신뢰의 확보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신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항 간 연결이 매끄럽고 글 전체가 단순히 문제에 대한 '답'을 넘어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강사님 교재와 더불어 주요 단행본과 논문들을 많이 읽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들이 직접 쓰신 양질의 문장들을 많이 접해보고, 이를 답안에 적극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단행본과 논문을 읽고 난 다음에는 꼭 1~2페이지 내로 요약하거나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고 이

를 막판에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4순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서 올해 출제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몇 가지 골라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정리하고 목차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리했던 주제 중 하나인 '중국의 부상'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정책학

정책학은 강사의 서브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며 모두 외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책학 사례노트를 만들어 사례를 풍부하게 답안에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답안 거의 매 논점마다 사례를 두세 개씩 들어서 썼습니다. 또한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답안의 논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습하였습니다.

저는 정책학이 선택과목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고 꽤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책학의 사례를 행정학에도 많이 활용하는 등 행정학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제3차 시험(면접)

면접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차 합격자 발표가 난 동시에 스터디를 꾸려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크게 집단토론과 개별면접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터디에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면접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스터디원들과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갔습니다. 또한 학원의 면접 강의도 수강하였으며 스터디에서 단체로 외부 면접 코치를 섭외하여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에는 비교적 자신이 있었으나,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면접에 대비하여 제 인생에서의 각종 경험들을 끌어내어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의 준비 과정은 정말 살 떨리고 부담감이 심하지만, 내가 왜 공직에 지원하였으며 공직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할 것인지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 전반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이를 면접관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V. 나가며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칙 중 하나는, 제 스스로에게 맞는 공부법을 따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으며,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합격수기를 읽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많이 참조했지만, 이는 단순한 참고 수준이었을 뿐, 대부분은 제가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믿고 나갔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강의를 무조건 따라 듣거나, 무작정 학원 순환만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때그때 본인에게 맞는 공부,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제 글은 참조만 하시고, 각자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